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교황청 “동성 결합 지지 교황 발언은 오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동성 커플 보호를 위한 '시민결합법' 지지 발언을 담은 다큐멘터리는 서로 다른 발언을 한데 묶은 것이며, 이 때문에 교황이 가톨릭 교리에 맞지 동성 결합을 옹호했다는 오해가 발생했다고 교황청이 해명했다(관련기사 본보 1339호 46면 '교황 "동성 커플도 주님의 자녀들"').

'가톨릭뉴스통신' (CNA)은 1일, 교황청 국무원이 지난달 21일 로마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와 관련한 공문을 전세계 주재 교황청 대사들에게 최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교황청은 이 공문에서 교황의 발언 중 동성애자들이 가족을 이룰 권리가 있다는 부분과 시민결합법을 통해 동성 커플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부분은 별개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는 두 발언을 이어 붙임으로써 교황이 동성애자들의 가족 구성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할 시민결합법 제정을 촉구한 것으로 묘사했다고 설명했다.

교황의 가족 구성 권리 발언은 자식 등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이고, 시민결합법 관련 발언은 동성애자들의 사회적 권리 보장 장치에 대한 언급이라고 교황청은 덧붙였다.

실제로 교황은 2014년 한 인터뷰에서 "세속 국가들이 동거의 다양한 형태를 규율하는 장치로 시민결합을 정당화하고 싶어한다."며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해서 각각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고 발언한 바 있다고 교황청은 상기시켰다.

에브게니 아피네엠프스키 감독이 만든 이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자, 교황이 동성간 시민결합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교계 안팎에서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아피네엠프스키 감독은 애초 교황이 이 발언을 자신에게 직접 했다고 말했으나, 멕시코 방송사 '텔레비사'의 2019년 인터뷰 영상을 편집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아피네엠프스키 감독은 편집 논란에 대해서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3:1-12)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한 해방 영웅 모세를 기억할 것입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버림을 받지만, 공주에게 발견되어 왕궁에서 자라다가 왕이 되기 직전에 살인을 저질러 광야로 나가 양치기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모세가 접근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 신발을 벗으라!" 고대에서 신발이란 더러운 것, 옛 것, 옛 관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옛 모습을 벗으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즉 네 옛 모습을 벗어야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누가 신발을 벗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땅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발의 신을 벗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불꽃없는 가시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에 임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천한 목동으로 있을 때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만사가 잘 풀리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자만심이 마음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이 구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디가 잘못되었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 우리의 옛



▲ 그래픽=shutterstock

모습을 벗기 위해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어떻게 신발을 벗을 수 있을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냥 지나쳤더라면 그저 한순간의 신기한 일로 흘려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당시의 상황을 무시하지 않고 인식했습니다. 즉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깨닫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며 문제가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자기의 인생, 자기 자신, 가족, 교회, 사회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외심을 갖고 감탄을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신발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저 옛 모습을 벗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의미를 동반합니다.

3. 왜 신발을 벗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 다른 말로 순종하는 사람이 신발을 벗을 수 있습니다. 어느 위대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

께 내어 맡길 때에 인간은 가장 고상한 인격자가 된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길 때에 가장 고상한 인격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자기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신을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사람이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옛 사람, 나의 허물진 모든 죄악된 모습,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진 인격, 그 신발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종윤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역임, 현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www.myevergreenschool.com

“에버그린 프리스쿨입니다”

GOD IS LOVE | JOHN 4:19

evergreen

PRESCHOOL • KINDERGARTEN

SINCE 2012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